

세무사 상법 수험 가이드

세무사 상법 공부방법론

1. 들어가며

세무사 수험생들은 회계사와 달리 민법, 상법, 행정소송법의 3개의 선택과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적은 분량으로 쉽게 점수를 딸 수 있는 과목은 민법입니다. 하지만 상법은 회계사와 세무사를 동시에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오히려 공부하기 쉬운 과목입니다. 상법의 5부분(상법총론, 회사법, 어음수표법, 보험법, 해상 및 항공운송법) 중에서 회사법만이 시험범위로 출제됩니다. 상법 전체로 보면 작은 범위임에는 틀림없지만 상법시행령과 조문의 개수를 따지자면 난이도에서 만큼은 결코 어떤 시험에도 뒤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2. 시험에 대한 전략으로 첫 걸음을 시작

상법에 대한 시험문제는 출제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대적으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 ★★★ 짜리짜리 출제문제를 환산한다면 19~26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40문제를 기준으로 47.5%~65%의 출제비중입니다. 처음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어 상법 공부량의 방대함에 기가 질리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꼼꼼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단순한 암기보다는 상법의 구조를 통한 이해를 통해서 암기량을 줄이시고, 두 문자는 단순암기식의 방법으로 유사부분들을 정리하는 형태로 나아가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상장회사에 관한 부분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심지어 상법시행령까지 출제되어 세부적으로 정확히 암기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제되는 시행령과 상장회사의 규정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상법에 대한 두 번째 걸음

법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단순히 법학적인 개념을 풀어낸 것을 말합니다. 회사법에 대해서는 수험생에게는 거의 접할 수 없는 생활이기 때문에 더욱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사의 운영에 대해서는 놔두더라도 상법에 나오는 용어가 제일 우선적인 난관으로 작용하실 겁니다.

상법의 용어는 한번만 익혀두면 반복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다행이도 많은 양의 용어정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해서 익힐 수도 있을 것이나 강의를 통해서 재미있고 쉽게 이해하시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영상강의보다는 실강의를 들음으로써 의문점에 대한 즉시 해결을 권해드립니다.

4. 조문에 대한 세 번째 걸음

실질적으로 법과목은 조문에 대한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사 상법의 경우에는 조문의 출제비중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문에 대한 암기는 다른 시험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특정 조문이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조문을 숙지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중에 강조하는 조문은 잘 표시해 두었다가 여러번 읽으시다보면 조문에 대한 친숙함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5. 판례숙지를 통한 네 번째 걸음

판례는 세무사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2009년도 세무사시험이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이후에는 더욱 판례 미출제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오히려 상법시행령이 시험에 출제되는 추세이므로 중요하다고 강의중 이야기 해주는 판례만을 간단히 이해하시는 정도의 공부로 충분합니다. 판례는 그 사안을 머릿속에 그려가며 사건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되었다는 연상기법을 통해 이해하신다면 법률용어나 조문보다 상대적으로 재미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6. 문제확인을 통한 마지막 걸음

이렇게 용어부터 조문 그리고 판례의 태도까지 전부 공부를 하셨다면 반드시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동안의 공부내용이 어떻게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기출문제의 출제비율은 매년 70%가까이 되고 있으므로 기출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지하시는 안됩니다.

기출문제를 푸는 것에 중점을 두지말고 조문의 어떤 부분을 틀리게 문제로 만들었는지를 하나 하나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강의에 대한 활용

상법에 대한 용어와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기본강의는 꼭 들어야 합니다. 세무사 시험에서 상법은 2차까지 서술하는 주과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무사 시험의 특성상 최소의 시간 투자로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하므로 개인적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강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본강의 이후에는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기본이론을 다시금 집중정리 하셔야만 상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집니다. 시험 마지막에는 기본서보다는 문제집을 여러번 반복하시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기본서와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정리가 되셨다면 꾸준한 반복만으로 상법의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마치며

상법이라는 과목은 처음에는 많은 공부시간의 투자를 요합니다. 처음부터 작은 시간의 투자로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없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일정수준으로 올라가기만 한다면 항상 높은 점수를 보장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승格的 법학원

세무사 행정소송법 담당 김묘엽 선생

일정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빠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올리고 싶으시다면 꾸준한 반복을 더 하셔야 합니다. 상법은 대충 공부해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는 고약한 과목인 동시에 투자에 대한 확실한 보답을 해주는 고마운 과목이기도 합니다. 상법이 세무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전략과목이 되시길 바랍니다.